

## 축제기간의 휴강, 공동체 강좌 참여의 방편

김 수 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축제가 대학사회의 공식적 행사로 정착되고 또 제도화 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성격 규정 및 의미 제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축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대체로 축제 자체가 갖고 있는 집단의 활성화와 연대의식의 고양 등 원칙적인 면을 중요시한다. 반면 대학 축제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려는 측은 그 향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이 짙다.

필자는 대학 축제라는 행사가 우리 사회의 문화의식과 집단 의식을 지탱하고 선도하는 데 매우 큰 구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를 통해 이를 수 없었던 공동체 형성 같은 실천적 성과를 얻게 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축제기간에는 휴강을 하고 교수와 학생 모두가 공동체 강좌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

### 1. 축제의 의미

축제의 연원은 멀리 고대 부족사회에서 제천의식과 같은 종교적 의례를 거행하던 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신화 연구를 통해 알려진 '제의적 광란(orgy)'도 축제의 성격

을 띤 집단 행위들이었다. 근대사회의 성립 이후 이 축제는 국가적, 민족적 단위의 행사로 정착되었다. 유럽에서는 부활절과 함께 봄날을 찬미하는 민족 단위의 축제가 많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 각국은 농경과 관련한 절기를 기념하는 가을 행사가 중심을 이룬다.

한동안 용어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축제'란 일본식 단어이며, 의미상으로도 우리 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축하하며 즐기는 일이 없으므로 일본 제사의 형태에서 따온 이 명칭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잔치'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대체하자는 대안도 이와 함께 제시되었다. 이 대안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축제란 말은 그 속에 유교적 제사라는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이 단어는 이미 경축하는 정신으로 벌이는 잔치와 행사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행사가 대학문화 속에 들어와 정착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축제의 의미와 대학의 성격이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 나름대로 축제의 의미를 들여본다면 첫째로 '규범에서의 해방'이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게 된다. 대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로는 집단적인 연대의식 고취이며, 셋째로는 개인적인 즐거움의 향유라 하겠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상실한 채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축제야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끈끈한 연대의 장이 될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리듬을 주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게 해준다. 대학과 대학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이 세가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축제는 모든 대학인의 현실과 미래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2. 대학 축제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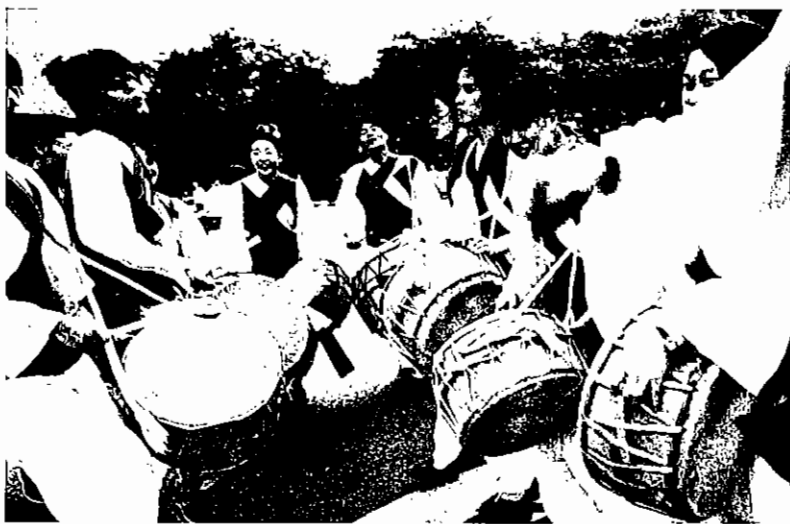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봄철이나 가을철 어느 한 쪽을 택하여 대대적인 축제의 기운이 캠퍼스를 뒤덮는다. 가을에 대규모의 축제를 계획한 대학이 봄에 작은 행사들을 산발적으로 치르기도 한다. 기간은 3일에서 5일 동안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별도의 축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과 내용의

운영은 대단히 다양하다.

축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술 행사도 보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거기 있지 않다. 대체로 주막을 비롯한 먹거리 파는 곳이 축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기가 수 초청 무대 주위만 성황을 이룬다. 뜻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행사가 대학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대, 그리고 활력을 발산하는 결집의 장이 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따라서 축제에 참여한 대학인들은 캠퍼스를 뒤쫓는 현수막과 포스터, 각종 소리들과 울동 등 요란한 외양과는 달리 참다운 젊은이의 열기와 공동체 의식은 매우 빈약할 뿐이라는 비판을 깊이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총학생회가 경향적 성격을 띠는 대학이 많아짐에 따라 축제의 현장이 이념의 선전 무대로 변질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이에 동조하는 학생은 준비 기간부터 아예 강의 출석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다수의 일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축제가 타성에 젖어 있고 평균 참여율이 20%를 훨씬 밑도는 원인이 학생회 간부들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강의 시간까지도 희생해 주었던 교직원들은 "이런 행사에 왜 휴강을 해야 하나?" 는 강한 거부감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축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야말로 대학문화의 경직과 후퇴를 가져올 더 큰 위험성을 동반한다. 이 행사로 인하여 대학인의 참된 자유와 공동체 의식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사뭇 감동적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속에서 가슴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서로 어깨를 견고 달리며 노래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대학 축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는다.

### 3. 공동체 강좌로 정착되어야

대학의 목적과 사명이 학문 탐구 및 인격 도야에 있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답은 다양하겠으나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대학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직 강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책과 사람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로 발전하여 나아간다. 자유를 구가하는 집단의 연대감을 대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 어느 분야의 학문에서든지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한학기에 3일에서 5일을 바쳐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배우는 일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인색한 시간 투자인 것이다.

축제 참여 문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만 휴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오전 오후를 막론하고 일종의 공동체 강좌로 인식하여 교수, 학생 모두 함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거운 계층 질서에서 해방되는 기쁨은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축제에 참가한 교수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 본다.

휴강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때 미리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조정

해야 할 것이다. 또 휴강후 첫시간에는 축제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공동체 의식에 관한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정신과 한층 성숙된 참여 의식을 경험하여 학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의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대학 축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규범에서의 해방, 공동체의 연대감 고취, 개인적 기쁨과 유익으로 귀결시켜 보았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강의와도 바꿀 수 없는 전인 교육의 현상이 곧 축제의 장소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듬고 고치도록 가르쳐야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축제를 외면하고 그 시간에도 계속 강의할 것만을 고집한다면, 공동체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교수의 눈치를 살피고 행위의 갈등을 일으키는 비교육적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99**

#### 김수중

조선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장로회신대 신학대학원과 대학원을 수료한 후 성신여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선대 인문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류교수로 파견되어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문학과 신학의 연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고전문학과 실천신학 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말씀의 징검다리』, 『신화와 문학정신』 등의 저서가 있다.